

양계 협회가 생산자 단체로서 권익을 옹호받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

이 영 록

(대한양계협회 이사)

1. 생산자 단체의 필요성.

인류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데 있어 그 류를 다 기록할 필요없이 지금껏 그재화를 부단히 소모하면서 생활하여 왔다.

그중에서도 일차산업에 종사하는 양계인들이 산물을 생산함에 있어서 어느 부문에서 보다 취약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음은 지감하고 있다.

그 취약성을 보완하고 생산기술을 향상 시키 위하여도 그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으며 약자의 변을 대신할 수 있어야겠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잘못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불평을 하는데 이는 늘 자가당착에 빠지기가 일수이다.

인류의 발전의 역사는 동물이나 식물세계와 마찬가지로 적자생존의 진리는 그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불변의 사실인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농가부업의 형태의 양계가 전통내지는 한 산업으로 대두하게 된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니다.

이를 위하여 양계인 스스로 그얼마나 악전고투를 하였던가?

그 결과 발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누구나가 다 절실히 느꼈을 것이다. 자기

산업에 충실을 기하다 보면 필요성을 확인하면서도 시간 및 거리성 때문에 적극적인 활동이 무척이나 제약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양계산업에 주종은 사육자임에 틀림없으나 이상의 이유로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양계산업으로 인하여 사료업이나 부화업 및 양계기구 제조업들은 제나름대로의 사업성을 인정하였고 이젠 기틀을 구축 하였음에 틀림없다.

이젠 사육자도 적극참여하여 자기의 권익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여야 할 시점이다.

사육자의 권익을 늘 그들에게 맡기고 열심히 노력하여 보았자 늘 후회만이 뒤따를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십분 이해 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자 단체는 자주적 즉 필요성에 의거 규합되어질 때는 진실한 생산자 단체로서의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주저하거나 단체의 무용성 내지는 소극적인 생각을 버리고 생산자 단체로서 할일을 할수 있게끔 배전의 협조와 참여를 하여 양계인의 권익을 찾도록 노력하자.

더욱이 양계업은 외국 의존율이 너무 높으므로 단체의 필요성은 너무나 불가피 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좋은 의견이나 다하여야 할 일을 늘 정책당국에 건의하여야 하며 외화의 낭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생산조정 기능을 갖자.

양계 협회는 단체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생산 조정 기능을 가져야한다.

운명공동체이지만 상호상충의 이해를 갖고 있는 본회원은 자제기능 (Self-control) 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시장이 요구하는 이상의 닭고기나 계란을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한 이상의 산물생산은 곧 생산자의 출혈만을 야기한다.

다시 말하면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 향상을 위하여 그보다 좋은일은 없지만 소득의 한계를 넘어 소비할 수는 없다. 생산자도 출혈 판매가로 더 이상 봉사하는 어리석음을 연출하여서는 안되겠다.

과거의 십년간은 양계업의 초기단계에서 수급조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안정산업이기 이전에 불안과 초조의 집철이었다.

국내 시장은 외국계 상표의 무질서한 범람 및 전시장이었다.

이젠 안전기틀의 정립이 실현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초생추 생산자나 양계가가 잘 알고 있다.

누구나도 공익을 무시한 개인 이윤추구만을 위한 시점은 이미 지났다.

한 생산자의 과욕은 전체 양계가의 불황을 조성하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절실히 느껴야한다.

양계사업의 근간인 부화업은 산물의 물동면에 책임을 느껴야한다.

우수한 초생추의 공급만이 자기의 사명이란 종래의 생각에서 깨어나 초생추 供給이 양계산업 전체의 운명을 左之右之하고 있다.

'77년 부터는 협회는 생산자 전체의 협회로서 시장이 요구하는 수요도를 정확히 체크하여 초생추 생산자가 조절기능을 찾을 수 있는

지침을 강구하여야한다. 사육자가 견재할 때 부화업은 물론 양계산업의 전체가 안정될 수 있다.

무리한 種鷄首數의 확보 내지 지침의 신빙성의 약화로인한 過大 競畵은 다시는 불러 이르게서는 않된다.

생산자중에서도 사육자는 모든 정보에 쉽게 접할 수 없는 불리성으로 인하여 막대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飼育者는 飼育에만 힘써소득의증대를 피하여야 하는바람직한 시점이 생산자 단체가 제구실을 할 때가 와야 보장 받을 수 있다.

産物의 備蓄 내지는 안정기금의 적립이 없는 현재로선 계절적인 산물가격 등위가 부단히 생산자중에서도 양계가를 유혹하고 있다.

이런 유혹은 냉철히 판단할 수 없을 때 자기의 파멸은 물론이러니와 전체산업의 균형을 깨뜨리고 일개업자의 치부의 길만 열어주고 사후 보장은 전무하였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선 안되겠다.

3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우수품종 육성을 권장 하자.

앞에서도 지적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서 動物性 단백질 供給이란 대 전제하에서 외화의존의 불가피성을 자인하면서도 양계업은 부단히 발전하였다.

현재론 한국실정에 맞는 鷄種의 개발이란 무척 어렵게 되어있다.

이는 양계업의 필수적인 配合飼料原의 내국재 개발에 限界가 있고 사료비가 양계업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고로 가능하면 飼料 效率이 높은 최우수 품종을 協會는 권장 하여야 하며 회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사양가는 이제 어떤품종 即 어느 상표가 이익을 위하여 최상의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스스로의 체험으로 證明 하였다.

어런 체험을 얻기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반복 하였던가?

생소한 상표는 국가 검정기관이나協會의 능력檢定이 증명하는 바에 따라 일반飼育家에 보급되도록 제도화 하자.

절대首數의부족 내지는季節的인 유희에 의한 사양가의願買行爲에無責任한 부화뇌동은 있을수 없다.

결국엔 개인의 과멸이며外貨의良費를 자초하기 때문이다.

산업의 안정 내지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소아를 죽이고 대아를 위한健全浪 산업으로서養鷄業을 꾸준히 성장시키기 위한 방안이 아 니겠는가?

4. 생산자단체로서 협회를 키우자.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하려면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어떻게 하여 줄 것인가 기대하기 이전 회원이 협회를 위하여 어떤일을 할까 먼저 생각하여야 한다.

같은 업계내에서 다소라도 기반구축이 이루어진 업체는 그 혜택을 업계로 환원하여야한다.

궁극적으로 사육가중에서 많은 사람은 자기 희생으로 少數는 성공 사례를 이루었다.

이젠 무모한 신규사업의 발생은 점차 줄어들게 되어있으므로 그惠擇을 줄수있는 方案은 협회를 통한 전체의 발전을 기약할수 있을것이다.

협회의 건실한 발전을위하여 회원 및 전 양계인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생산자.스스로가 협

회를 이끌어 가는데 물심양면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생산자 전체가 참여하여 협회의 기금조성에 혼연히 협조할때 이상에서 열거한 문제점은 하나하나 해결될 것이다.

협회가 오늘에 이르기 까지 협조를 아끼지 않은 많은 동업자에게 양계인으로 감사한 마음 금치 못하나 앞으로 더더욱 발전할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약속되는 만큼 생산자를 위한 생산자에 의한 또한 생산자의 협회는 기필코 발전할 것이지 정지나침체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협회는 생산자가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구체적으로제시하여야 한다.

회원은 물론 전체양계인의 의무는 보다 저렴한 산물을 생산공급 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수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준수함으로서 개인은 국민의 한 사람 으로서 양계산업의 한 일꾼으로서 자기의 의무를 다 하였다고 하지 않을까?

이같은 방안이 널리 인식 되고 지켜 나갈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양계업 중에서 사양가는 타업보다 자본의 취약성 및 여러가지 제약사항으로 일대일의 상대는 항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므로 단합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전체 생산자 단체가 한 업종의 힘으로 유지 발전되고 있는 것을 좌시하고 있어서도 않된다.

바람직한 것은 전체의 힘으로 이끌어 질 때 전체를 위한 협회가 될 것이다.

